

현대와 기독교적 인식론

Modern Times and A Christian Epistemology

양성만

- I. 서론
- II. 쉼퍼의 세상읽기에 나타난 인식론
- III. 이성의 회복 - 기독교적 인식론
- IV. 결론

Abstract

In this article I discuss what a Christian epistemology in 20th century should be. Schaeffer analyzed the rise and decline of western thought and culture in his books. His conclusion is that western men happen to escape from reason because they decided to escape from God and to be autonomous. My discussion starts from this conclusion and I propose to return to God and restore reason. I describe some principles of a Christian epistemology and show how they solve a epistemological perplexity in philosophy as an example.

I. 서론

하나님께서 손수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중 제3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나 여호와가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7일을 거룩히 지켜서 이날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것을 명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머지 6일 동안에도 힘써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독교의 계명이 이처럼 주일에 대해서뿐 아니라 나머지 6일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범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 계명을 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자신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주재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의 하나님 이실 뿐 아니라 만물의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 하루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에도 잘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삶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과 달리 거룩하게 살아가라”가 될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원칙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복잡하다. 차라리 세상에서 떨어져서 살라고 하면 간단할 텐데 세상 속에서 살되 그러나 세상에는 속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 속에서 살려면 필히 세상과 접촉하면서 주고받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면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부터 반대해야 하는가? 모든 상황에 들어맞는 어떤 획일적인 규칙은 없을 것이다. 어쨌든 분명해지는 사실은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을 좇아서 사는 것도 아니므로 세상도 바로 알고 우리 자신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은 이 세상도 바로 알고 우리 자신도 잘 알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그러나 이런 짧은 글에서 이런 큰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필자는 글의 이야기를 인식론에 한정시키려고 한다.

필자가 특별히 인식론을 다루려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현대인의 삶에서 인식론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현대인의 기본적인 세계 - 인생관이 인본주의라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다. 인간을 존재하는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았을 때, 사람들은 인간의 여러 부분 - 능력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 지성의 능력에 주목하였다. 그것이야말로 전통적으로 인간을 다른 여타의 존재와 구별시켜 주는 탁월성이기도 했거니와 인간이 책임 있는 인격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것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근대인이 인간을 만물의 중심으로 삼았을 때 그것은 곧 이성을 만물의 중심으로 삼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성이 언제나 진리 인식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었고 따라서 바른 인식에 도달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인

인식론이 근대 철학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

그 결과 근대인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의미 있게 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당한 인식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이 짐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지워져 있으며 이 짐이 하나님 나라 안의 많은 논의를 억누르고 있다. 우리는 이 짐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할 것이다. 주께서 지우시는 짐은 겸손하게 지어야 하겠지만 이 시대의 상좌에 앉아 있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지우려는 짐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세상을 바로 알고 자기도 바로 알기 위한 작업의 한 부분으로서 인식론에 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필자는 쉼퍼 박사의 논의를 도움판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는 ‘세상을 바로 알고 나 자신도 바로 알기’라는 작업을 이 시대에 충실하게 이행해 낸 대표적인 기독교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쉼퍼 박사의 작업은 인식론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문화 전반을 다루고 있지만 그의 문화론의 논의는 인식론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쉼퍼 박사는 그의 책에서 기독교적 인식론을 충분히 전개하지는 않았다. 이 부분은 필자가 그의 글이나 다른 기독교 철학자들, 사상가들에게서 시사받은 것을 종합해서 하나의 체계로 제시해 보려고 한다. 물론 이것은 대략적인 스케치에 불과할 것이다.

II. 쉼퍼의 세상 읽기에 나타난 인식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How Should We Then Live?*¹⁾는 ‘서구사상과 문화의 부흥과 쇠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이

1) Francis A. Schaeffer, *How Should We Then Live?: The Rise and Decline of*

책은 인류가 로마시대 이후 어떤 선택을 하여 어떻게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생명의 길을 제시하려는 선지자의 외침이다. 쉐퍼는 책의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역사와 문화에는 어떤 흐름이 있다. 이 흐름은 사람들의 사상 속에 뿌리박고 있으며, 거기에 원천을 두고 있다. 사람은 마음의 내면생활이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즉 그들의 사상 체계가 그들의 행동방식을 결정한다.('그러면', 19쪽)

비록 쉐퍼 자신이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화란의 신칼빈주의의 세계관 논의에 힘입었음은 위의 인용문으로 보아, 그리고 그가 이 책에서 논의해 나가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분명하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이 책보다 8년 전에 출판된 그의 3부작의 하나인 *Escape from Reason*과²⁾ 거의 동일하다. 쉐퍼는 후자의 본문을 필요에 따라 다소 수정하면서 각 내용에 해당하는 실제적인 예들을 삽입시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만들었다. 실례들이 첨가됨으로써 재미가 가미되었을 뿐 아니라 설명의 타당성이 힘을 얻게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먼저 출판되었던 책의 제목이다. '이성으로부터의 도피'라는 제목은 이 두 책의 중심 사상을 표어처럼 잡아 준다. 서구의 문화는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러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답을 찾는 일에 실패하였으므로 이성으로부터 도피하기에 이르렀고, 이제는 합리적인 대답을 찾는 일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구 문화가 어떻게 해서 이성으로부터 도망하기에 이르렀는가? 쉐퍼의 설명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원론적인 사상에서부터 시작한다. 아퀴나스의 이원론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된다.

Western Thought and Culture, Crossway Books, 1976, 김기찬 역,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서구사상과 문화의 부흥과 쇠퇴', 생명의 말씀사, 1984.

2) Schaeffer, *Escape from Reason*, InterVarsity Press, 1968.

은총, 상충부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하늘에 속한 것들, 보이지 않는 것과 땅 위에서의 그것들의 영향, 통일성 혹은 존재와 도덕에 의미를 주는 보편자나 절대자

자연, 하충부 피조물, 땅과 땅에 속한 것들, 보이는 것과 인과적 우주에 보통 발생하는 것, 사람으로서의 인간이 땅에서 하는 것, 다양성 혹은 개체적 사물, 개별자 혹은 사람의 개별적 행위들

쉐퍼에 의하면 이런 이원론의 문제점은 이것이 인간의 삶 속에 자율성의 영역을 마련해 주었다는 데 있다. 아퀴나스의 이원론에 의해서 자율성의 베이스캠프를 마련한 근대인은 그후 자율적 인간을 만물의 중심으로 삼는 인본주의의 영토를 점차 넓혀 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이 자율적이며 사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그러면」 63쪽). 이 확장전쟁은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를 통해 수행되었다.

물론 근대 초기에 참된 종교를 부흥시키려는 종교개혁이 있었으며 종교개혁은 종교뿐 아니라 음악, 미술, 정치, 일반 학문에 이르기까지 문화 전반에 걸쳐 성경에 기초한 참된 진리들에 의해 건강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근대 문화 흐름의 대세를 장악하지는 못했다. 종교개혁과 같은 시기에 르네상스가 진행되었다. 르네상스라는 단어는 ‘재탄생’을 뜻하지만 르네상스 운동의 본질은 인간관의 변화였다. 그것은 인간을 모든 사물의 중심에 두는 운동이었다(「그러면」 58쪽).

쉐퍼는 근대 이후 서구 문화의 흐름을 다소 도식적으로,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흐름과 르네상스-계몽주의에 의한 흐름으로 나누어서 그 결과를 비교한다. 종교개혁은 국민들에게 참된 자유를 제공했다. 정의의 기준과 법률의 기초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두었기 때문에 입헌주의로 나아

갔고, 여기에 의거해서 종교개혁의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가질 수 있었다. 르네상스의 인본주의를 계승하여 프랑스 혁명의 정신적 지주를 제공한 계몽주의는 이성, 자연, 행복, 진보, 자유를 자기 이념으로 삼았다. 이 이념들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 이념의 추구의 결과는 그들의 유토피아적 기대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다. 계몽주의에서는 국민의 주권, 혹은 일반 의지가 최상의 존재였는데 일반 의지 자체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하는 것이었으며, 그럴 뿐 아니라 소수의 권력이 얼마든지 일반 의지로 둔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무정부 아니면 압제’였다(「그러면」, 151쪽).

쉐퍼는 근대 자연과학이 발흥할 수 있었던 것이 오로지 기독교 때문이었다고 단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근대 과학의 등장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와 대립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결정적인 점에서 과학혁명만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에 근거했다고 주장한다(「그러면」, 161쪽). 비기독교인들도 자연과학 연구에 활발히 참여했다. 그러나 이들은 곧 세계를 열린 체계가 아니라 닫힌 체계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 또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일종의 물체로, 진화 과정상의 한 동물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르네상스-계몽주의의 인본주의의 몰락은 철학에서 확실하게 확인된다. 이성이 어떤 타자의 도움 없이(합리주의) 모든 진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근대 철학의 이념은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을 출발시킨 지 몇백 년도 흐르지 않아 곧 위태롭게 되었다. 쉐퍼에 의하면 인본주의 철학의 붕괴는 루소, 칸트, 헤겔, 키에르케고르에게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 이후 현대 철학은 인간의 삶의 의미와 기준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을 포기하고 말았으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은 비이성의 영역에서 추구된다는 것이다. 그 비이성의 영역은 때로는 예술로, 때로는 한계 체험으로 심지어는 마약으로 나타난다. 중세를 벗어나 근대로 들어서면서 인류는 이성을 통해 모든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을 주겠노라고 확인하며 출발하였

는데 이제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이성으로부터의 탈출, 혹은 도피가 되었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이성으로부터의 도피에 도달하게 되었는가? 쉐퍼의 진단은 간단하다. 이성이 자율적이 되기로 선택하면 이성은 이성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의미와 가치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이성으로부터 도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성으로의 복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성이 제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쉐퍼에 의하면 이성이 자율적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놓으신 진리로 돌아가 거기에 순복할 때 그때에 비로소 이성이 이성으로서의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쉐퍼는 이런 자기 주장이 종교개혁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서 실증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III. 이성의 회복 - 기독교적 인식론

그렇다면 이성으로부터 도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쉐퍼에 의하면 로마시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인류의 경험을 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 거기에 복종하면서 이성을 사용할 때 이성은 자기의 진정한 기능을 발휘하며, 그럴 때 인간은 자신의 정체와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절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에 복종하는 이성이 어떤 모습일지, 즉 기독교적 인식론이란 어떤 것일지를 정리해 보자. 물론 이 작업은 대략적인 스케치에 불과할 것이다.³⁾

3) 현대의 기독교적 인식론을 대표하는 것으로서는 화란의 기독교 철학자 도예베르트와 그의 후계자들의 철학과, 미국의 플랜팅가, 윌터스토프 등으로 대표되는 개혁주의 인식론(Reformed epistemology)이 있다.

1. 출발점 - 무지의 인정

보통 인식론은 인간이 진리를 알 수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인간이 알 수 있는 지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각각의 확실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가려내고 그 다음에는 확실한 지식에서 출발하여 인식의 범위를 가능한 한 최대한 확장하여 지식의 한계에까지 도달하려고 한다. 그러나 기독교 인식론의 출발점은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세계를 모른다. 자기도 모르고 자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왜냐하면 본래 진리의 확정인 인간의 일이 아니라 창조주의 일이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지식을 갖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2. 하나님께서 알려 주셔서 안다

그런데 인간이 진리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까닭은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본래적인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알려 주셔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알 수 없거나 알 필요가 없는 것들, 알아도 별 소용이 없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쓸데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일을 덜하게 될 것이다.

3. 알의 다양한 방법

근대 이후 인류가 가장 대표적인, 혹은 바람직한 인식의 방법으로 여긴 것은 학문, 혹은 더 좁게 말하자면 과학이다. 그러나 인간이 알아야 할 지식의 대상이 한 종류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식을 주시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다. 인간에게 가능한 지식획득 방법, 가장 대표적이거나 바람직한 방법이 보통 학문의 방법이라고 알려진 방법이라고 단

정하지 말자. 만일 그렇지 않고 학문을 가장 바람직한 유일한 방법으로 인정한다면 계시의 의한 지식은 필연적으로 학문의 방법과 대치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지식의 종류를 총망라하여 분류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아주 간략하게 몇 가지로만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 우리의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크게 나누자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고, 둘째는 인간, 셋째는 자연이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현금의 학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식으로 인정되는 것은 자연을 상대로 하는 자연과학이다. 자연과학은 수학을 언어로 사용하는 확실한 지식을 이용하여 자연의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따라서 자연을 상당한 정도로 지배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자연과학에 매료되어 현대인은 인간을 상대로 하는 인문과학, 사회과학까지 자연과학적인 방식으로 다루려고 한다. 그 결과 인문과학은 현금에 이르러 존폐 위기에 이르렀다고 아우성이다.⁴⁾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아는 방법은 자연을 아는 방법과는 아주 다르다. 자연은 자연법칙을 따라 움직이지만 인간은 어떤 필연적인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움직이는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 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인격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어떻게 얻는지 반성해 보자. 필자로 말하자면 필자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필자의 아내이다. 내가 내 아내를 아는 것은 내가 내 자동차를 아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나는 아내가 식탁에 젓가락 놓은 소리의 미묘한 차이에서도 아내의 기분을 알 수 있고 나에 대해 어떤 감정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어떤 때는 그런 감정상태를 미리 예상할 수도 있다 - 다행히도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내가 내 아내를 이해하게 되는 것은 계시에 의한 지식에 많이 의

4) 인문학의 위기를 다룬 대표적인 글로는 강영안 “통일 과학 이념과 인문학” (『철학』, 제51집, 1997, 여름)이 있다.

존한다. 결혼 초기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고 황당해 하기도 하고 대책이 서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과 하나님께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 잘 알게 된 바가 적지 않다.

이런 점은 나의 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지 상당한 정도로 추측할 수 있다. 사람이 원래 타락한 존재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아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나는 교회 안에서 지체된 형제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물론 가까이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잘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사람을 알고자 할 때에는 자연을 탐구할 때와는 아주 다른 태도가 요구됨을 느낀다. 그것은 알고자 하는 상대가 사람일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 정당한 자제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내가 내 처를 잘 알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사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지고 가닥이 잡히질 않는다. 사람의 경우 사랑과 앎이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아는 인간 지식이란 자기 주변의 몇 사람만 아는 것이며 그것은 보편화될 수 있는 성질의 지식, 즉 학문의 영역에는 들어올 수 없는 종류의 지식이지 않은가?” 하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필자는 물론 위에서 예로 든 부류의 지식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 말한 인격적인 관계에 의한 지식 이외에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할 지식은 많이 있으며, 어떤 종류의 지식은 학문적인 방법을 써서 좀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고 또 그래야 하며, 좀더 찬찬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연과 교섭하는 것도 다른 사람과 정당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란 멀리 있는 사람과 맺는다는 것보다 가까운 사람과 맺는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아니 좀더 정확하게 말하

자면 인격적인 관계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멀리 있는 사람과도 맺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⁵⁾ 또한 위에서 예로 든 필자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인격적 교제 속에서 획득된 지식이 절대로 보편화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나는 나의 아내, 아들에게서 얻은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나의 아내에게서 유추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인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내 아들에 관한 지식에서 유추하여 다른 아이들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물론 그것은 학문계에서 선호하는 종류의 확실한 지식은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에서는 이런 종류의 지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신 방법이 이것인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여 멀리’라는 원칙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서 위사람을 공경하라는 계명으로 해석되고 있는 5계명은(64문) 부모공경에서부터 시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복음 전파는 어방 땅 먼 곳에서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었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은 부부 사이에서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엡 5:28) 부부 사랑이 이웃 사랑의 전범이 됨을 함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아는 방법과 자연을 아는 방법 사이에 큰 단절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그것이 자연물이 되었든 아니면 인격이 되었든) 피조물을 아는 방법과는 큰 단절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암시한다. 물론

5) 가까이 있는 사람과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불만족스럽다. 참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인류가 항상 추구해 마지않는 영원일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만물의 통일을 가져옴을 가르치고 있고 이는 성도들 사이의 대통일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이는 일에 하나가 됨을 이루는 성도들 사이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하나님께 대한 앎의 방식은 둘 중에서는 단연코 사람을 아는 방법과 비슷하다. 자연을 아는 경우에는 우리가 주체가 되고 자연은 완전히 객체가 되어 우리가 원하면(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자연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는 달라진다. 내가 아무리 상대를 알고 싶어해도 상대가 자기를 숨기고 나에게 알려 주지 않으려고 하면 나는 상대를 알 수 없거나 알더라도 완전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런 사정은 하나님에게서는 극단에 도달한다. 하나님의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알고자 해도 하나님 편에서 알려 주지 않으면 나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다. 사람으로서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본질상 동일한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아는 앎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며, 성신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 아들이 오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던 것이므로 성경은 이 지식을 비밀이라고 표현한다. 아들이 왔으므로 이 비밀이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롬 16:26).

사람을 알려면 그에 대해 정당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대한 정당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경외 혹은 경건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은(잠 1:7)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적으로 앎의 주체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앎의 객체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경우에는 앎의 객체가 선택한 앎의 구체적인 방법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앎의 객체인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스스로 선택한 대표적인 통로들은 성경, 교회, 목사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되(요 5:39)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의 풀어 주는 말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다(엡 4:11-13).

IV. 결론

지금까지 기독교 인식론의 출발점을 살펴보았다. 첫째는 우리는 원래 무지하다는 점, 하나님께서 알려 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점, 지식의 대상에 따라 앞의 방법이 아주 달라진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이제는 이런 출발점을 인정할 때 기독교 인식론이 갖게 되는 특성들을 지적해 보자.

1. 중요한 것은 확실성이 아니라 앞의 내용

앞에서 우리는 근대에 들어와 인간을 사물의 중심으로 삼으면서 인식론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었다. 이성이 모든 진리의 기준이므로 한편으로는 전통적으로 진리라고 인정되었던 것들을 불러내어 그것이 이성에 의해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심판해야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에 의해서 확실하다고 인정할 만한 종류의 지식을 찾아야 했다. 합리론은 그것을 이성의 자기 의식의 명증성에서 찾으려고 했고 경험론은 경험적 소여에서 찾으려고 했다. 그후 모든 근대의 철학자들이 인식론에 매달린 것은 아니었지만 인식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는 근대 이후의 철학자들의 머리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는 문제였다.

따라서 현대의 지식인에게서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지식을 갖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다음의 밀의 인용문은 근대인들의 이런 태도를 잘 보여 준다(「자유에 관하여」 2장).

올바른 신념이 마음속에 있지만 그것이 편견으로, 즉 논증이 없는 신념으로, 논증적 증명과 어긋나는 신념으로 있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존재가 진리를 갖는 방법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그 진위가 금방 평가될 수 있는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겠

지만 인문과학에서는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틀린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일정한 수준의 학적 연구방법을 습득하고 있다면 좋은 연구 업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진리를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진리라고 인정되는 것들이 어떻게 그 인식론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지적한 대로 지식의 성격이 지식의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런 비판의 정신이 바른 삶에 도달하는 데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비판은 바른 지식에 이르는 좋은 방도가 된다. 그러나 상대가 사람일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식이 인격적 교제에 근거한 삶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비판의 정신이 아니라 상대의 뜻을 헤아리고 인정하는 착한 마음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에는 비판보다는 권위가 중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지식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에는 삶의 주도권이 주체에 있기보다 객체에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 줄 통로로 선택한 것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만일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나의 인식능력을 총동원하며 주도 면밀하게 연구하면 지식에 도달하겠지만 지식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쓰시는 도구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가르침을 좋은 마음으로 따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나 아니면 이웃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알게 된 지식, 그러니까 충분한 학적인 검토 없이 주로 권위에 의해서 받아들인 지식은 그것이 학문에서 요구하는 지식의 근거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주 낮은 차원의 지식이라고 해야 할까? 물론 그 지식의 내용을 그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웃에게 전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며 또 믿는 형제에게 전하기도 쉽지 않

을 것이다. 그러나 지식의 능력은 다른 사람에게 입증해 보이거나 전달하는 데 있기보다 자기가 그 지식을 따라 삶을 구축하는 데 있을 것이다. 물론 남에게 전달하거나 입증하려는 사람은 그보다는 훨씬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이성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이성의 회복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나 기독교적 철학은 일종의 불가지론 내지 회의론이라고 주장한다. 저쪽은 모든 문제를 이성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믿어야 돼!’ 하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부분이 있는 말이다. 필자가 앞에서 기독교적 인식론의 첫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바로 저 ‘우리는 모른다’라는 회의론이었다. 그러면 기독교가 회의론이라고 주장하는 저쪽은 다 아는가? 혹은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으리라는 그들의 신념은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 신념인가? 이 문제는 학문적으로 토론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신앙의 문제이다. 진리를 인간의 진리로 한정시킨다면 그들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든 진리의 근원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회의론을 우리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성을 포기하고 이성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비록 회의론에서 출발해도 우리는 지식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자연에 관한 지식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 관한 지식이든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성은 자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과학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딱딱한 형식논리의 틀에서 벗어나 인간의 내면의 보다 복잡한 의미 연관을, 인간 세계의 논리만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 나

라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세상을 바로 읽기라는 작업을 20세기에 대표적으로 수행한 사람으로 쉐퍼 박사를 꼽았다. 어떤 역사학자가 쉐퍼처럼 서양의 문명사의 흐름의 정체를 꿰뚫어 보았는가? 서양 문화의 부흥과 쇠퇴를 것처럼 설득력 있게 설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성의 위력이다.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들이 찬란한 기독교 문화, 기독교 학문을 내놓지 못한 이유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감연히 돌아가지 못하고 저 바리새인들의 주변을 계속 기웃거리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3 철학적 난제의 해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성으로부터의 회피인지 아니면 이성의 회복인가는 철학적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인식론상의 한 문제를 다뤄 보려고 한다. 필자는 필자가 제시하는 내용이 틀림없는 정답이라고 확언할 생각은 없다. 학문에 속하는 연구는 단번에 정답에 도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오랜 동안에 걸친 여러 학자들의 연구 끝에 조금씩 알아 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물주께서 이런 종류의 지식은 그런 방식으로 알아 가게 하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필자가 제시하는 내용은 깊은 연구 끝에 내려진 결론으로서 제시한다기보다 앞으로의 연구의 어젠다(agenda)로서 제시하는 것이다.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철학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은 난제이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고전적인 답변이 주어져 있지만 철학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답변은 진리 대응설이다. 진리 대응설은 명제가 사실과 대응할 때 진리라고 한다. 그러나 이 진리론은 명제가 사실과 대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또 자연법칙처럼 일반 명제로 표현되는 지식은 그것이 사실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없다는 치

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리관이 될 수 없다고 평가된다. 그 대안이 진리 정합설로서 이 이론에 의하면 명제는 기존의 지식과 정합할 때 참이 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최초의 지식은 어떻게 진리로 인정되었으며 또 서로 정합하는 체계가 둘 이상이 될 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에 적절히 답할 수 없다는 점이 큰 약점으로 지적된다.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실용적인 진리관은 진리란 곧 인간이 살아가는데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리라는 개념은 유용성이라는 개념과 구별되며, 유용하기 때문에 진리이기보다 진리이기 때문에 유용하다는 주장이 더 그럴 듯해 보인다.

이런 진리론의 이면에 깔려 있는 발상을 더듬어 보면 **진리의 문제를** 순전히 인간 편에 놓고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진리의 문제를 순전히 인간 편에만 놓고 생각하면 이를 배반에 빠지는 것처럼 보인다. 한 순간 인간은 부분적이긴 하지만 진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은 자주 변하고 발전한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지식이 진리가 되고 이전의 진리는 비진리가 되고 만다.⁶⁾

만일 우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그리스도의 주장을 (요 14:6)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 진리는 하나님의 의사 표명인 말씀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어떤 것이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의 말, 특히 법률에서 유추해서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면 진리는 사물들이 서로 어우러져 빚어내는 일정한 현상으로서의 사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현상들을 빚어내는 법칙에 가까울 듯하다. 이것이 객관적인 진리라고 한다면 인간 편의 진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이-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이 가는가? 사람들은 사실을 관찰함으로써 그 진리에 대한 힌트를 얻고 논리적으로 따져봄으로써 다소의 확신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는

6)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 방법이 해결의 변증법과 포퍼의 박진성(verisimilitude) 개념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진리들을 알고 그 지식을 유용하게 사용하게 하셨다. 따라서 사실과의 일치나 논리적 정합성은 진리의 구성요인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판별할 때 사용되는 기준(criterion)에 불과하다. 어떤 명제가 우리가 관찰한 사실과 일치하거나 논리적으로 증명되었을 때 우리가 소유한 것은 그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 진리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하는 단서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학문적 지식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성이 아니라 높은 개연성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학문이란 일종의 예언의 성격을 지닌다고 생각된다. 구약의 예언은 나중에 성취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기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언과 성취의 일치는 서로 마주 대한 선 사이의 일치가 아니라 계속 연장해 나간다면 직각을 이룰 두 선분 사이에 비스듬한 방향으로의 일치이다. 여기에서는 일치하는 요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요소도 있다. 그런데 이 예언은 그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 예언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기대하며 믿고 살았다. 오늘날 신약의 백성들은 훨씬 더 밝히 안다. 그러나 완전히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일 것이다.

인간의 지식도 비슷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인다. 인류는 경험과 논리를 통해 그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어떤 곳, 어떤 때에는 그 방법이 훨씬 조야했고 다른 곳, 다른 때에는 그 방법이 훨씬 치밀했다. 그들의 지식은 그 진리에 도달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정도에 따라 인류는 그 나름대로 지식을 획득하고 그 지식에 의지해서 살았다. 지금의 과학시대라고 그 진리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그래도 그때보다는 훨씬 그 진리에 가까이 갔다고 생각된다. 조야한 방법에 의한 지식이나 치밀한 방법에 의한 지식이나 사선적인 방향으로 그 진리에 일치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 글에서 필자는 20세기에 기독교인들이 어떤 인식론을 갖추어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필자는 쉐퍼 박사의 논의에서 출발하였다. 쉐퍼는

서구 문화의 부흥과 쇠퇴를 분석하면서 서구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율적이기로 결정한 결과 그들이 막바지에 도달한 것은 이성으로부터의 도피였음을 밝혔다. 필자는 쾨퍼의 이 결론에서 출발하여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성이 어떤 인식론을 가져야 할지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식론이 현 철학의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보이려고 하였다. 이미 밝혔지만 이 글의 논의는 앞으로 우리가 논의해 나가야 할 어젠다의 수준이다. 이 글이 형제들 사이의 논의의 -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 출발점이 된다면 필자로서는 대만족이다.

■ 양성만 ■

1959년 생. 고려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철학전공 및 철학박사. 현재 우석대학교 교수로 재직. 한국기독교철학회 회원이며,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위원으로 활동. 역서에 「창조·타락·구속」(IVP)이 있고, 「창 1:24-26은 문화명령인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사용론 연구」, 「감각 언어와 마음의 존재」 등의 저서 다수.